



## 개회식 축사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화 미디어 아트 프레젠테이션(EMAP)에 대한 놀라운 지원과 조형예술대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존중, 그리고 제가 명예 석좌교수로서 이화에 온 것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캠퍼스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이화여자대학교와 프리즈 서울 간의 이 독특한 협력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프리즈 필름의 중심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화 미디어 아트 프레젠테이션은 5년 만에 다시 대면 행사로 이루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행된 국내외의 제한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시행된 이 행사는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난 시대에 다시 물리적 행사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전 지구적 바이러스는, 우리의 운명이 인간으로서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국경과 인종을 넘어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우 강력하게 보여주고, 이는 우리의 역사와 미래가 얽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기후와 생태적 비상사태의 부인할 수 없는 영향을 이제야 비로소 경험하게 되면서, 인류를 이 자초한 곤경에서 구해내기 위해서는 다른 가치관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급히 우리가 '선진 세계'라고 생각해온 곳에서 발전해 온 기존의 범주를 넘어서 사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 간 분리시키고,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하며, 문화를 자연과 대립시키는 전통, 제도, 권력 구조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대신, 이제 우리는 시급히 우리를 연결하는 것에 집중하고, 현재의 치명적인 위기에서 우리를 구출할 수 있는 다른 이해와 행동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제들은 이화여자대학교와 같은 선도적인 대학들에서, 우리가 익숙한 전통적인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예술, 과학, 사회과학에 걸쳐 생물체와 복잡한 시스템 간의 상호 연결성을 탐구하는 새로운 지식 생태계를 통해 점점 더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EMAP 2024의 목표는 이러한 새로운 사고방식에서 시각 예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조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들이 우리에게 가능한 미래를 상상하게 해주고, 현대 사회의 변방에서 유지되어 온 대체적인 행동 양식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임무를 맡아, 발렌타인 우만스키와 박주원 큐레이터 팀은 지구 반대편에서 모여, 이 특별한 공간, 이 놀라운 캠퍼스에서 지금 이 순간에 깊이 얽혀 있는 풍부하고 감동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오래된 건축물과 새로운 건축물이 어우러진 이 역사적인 정원에 자리 잡은 이 캠퍼스는 21세기 대도시 속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짧은 시간 안에, 예술 공간으로 설계되지 않은 환경에서 실현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다행히도, EMAP 2024는 훌륭한 교수님 세 분이 이끄는 놀라운 팀의 지원과 헌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팀에는 미술 및 디자인 학부의 헌신적인 교수진과 밤낮없이 노력한 자원봉사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젯밤 여러분과 함께 설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으며, 큐레이터 팀과 저를 대신해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프란시스 모리스, 석좌교수  
총괄 디렉터

## Opening Remarks

Hello. I sincerely appreciate the extraordinary support for this year's Ewha Media Art Presentation (EMAP), the profound interest and respect for the College of Art and Design, and the warm welcome extended to me as an honorary visiting professor at Ewha. Thank you to those of you who are joining us tonight, many of whom are visiting the campus for the first time, to celebrate this unique collaboration between Ewha and Frieze Seoul. We are thrilled to be the focus of Frieze Film this year.

This year, EMAP returns in person for the first time in five years. Stalled by local and global restrictions imposed by COVID-19, it returns in a much-changed era. The global virus – still with us – has demonstrated very starkly the profound entanglement of our fates as humans. It has shown how we are invisibly linked across borders and races, with each other, and how our histories and futures are entangled. We cannot act alone. As we begin, finally, to experience the undeniable impact of the climate and ecological emergency, it feels imperative to recognise that a different set of values and behaviours are required to rescue humanity from this self-imposed predicament. We need urgently to acknowledge, understand and think beyond the conventional categories we have developed in what we call the advanced world. Traditions, institutions and power structures that divide nation from nation, that separate human from non-human and oppose culture to nature. In their place, we need urgently to focus on what connects us and consider what different understandings and behaviours might lead us out of the current, deadly crisis.

Much of this ground is being explored behind closed doors in leading universities – like Ewha – in traditional

disciplines we are familiar with but also increasingly through new knowledge ecologies. These efforts span across arts, science and social sciences, exploring the interconnectedness between organisms and complex systems. The ambition for EMAP 2024 was to focus on the central contribution of the visual arts to this emerging way of thinking. A new generation of practitioners is helping us imagine possible futures while also inviting us to reconnect again with alternative patterns of behaviour kept alive in communities on the margins of the modern world.

Invited to take on this mission, the curatorial team of Valentine Umansky and Joowon Park came together from opposite sides of the planet, and have worked productively together to choreograph a rich, moving and deeply engaging programme. Their work resonates wonderfully entangled in the here and now of this place, this extraordinary campus of old and new architectures, embedded in an extraordinary and historical garden, rooted in a 21st-century metropolis. We are deeply grateful to you both.

Realising a project like this, in a short space of time, in an environment not designed as an arts venue is enormously challenging. Fortunately, EMAP 2024 has been supported and delivered by an incredible team led by a trio of great professors, including dedicated teaching staff from the faculty of Art and Design and a host of volunteer students who have worked around the clock to deliver an exemplary installation. Witnessing the last hours of the installation with you last night was for me the greatest pleasure. On behalf of the curatorial team and myself, I want to congratulate you all.

Frances Mary Morris CBE, Distinguished Professor  
Director



# 우주를 엮는 모든 것들, 그 양자적 관계에 대하여

디지털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과 함께, 자연 세계와 인간의 본질적인 관계가 희미해지고 멀어지고 있습니다.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공간과 경계는 근본적으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후 비상사태의 지금 시기에, 우리와 같은 생태계를 공유하는 존재와 사물을 생각하고, 보살피는 일이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우주를 엮는 모든 것들, 그 양자적 관계에 대하여》는 시간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 작품을 통해 이 주제를 다룹니다. 전시 작업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여러가지 다른 관점을 제시하면서, 지난 식민주의적 관념에 꾸준히 이의를 제기하고, 자본주의와 식민주의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경제적 불평등, 문화손실, 환경오염과 착취적 의존성을 유발하며 우리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강조합니다.

전시 안에서, 엮는다는 행위(weaving)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모든 것의 연계성을 상징하는 비유로 작용합니다. 각기 다른 종 간의(inter-species, 種間) 상호 활동인 “엮는 행위”는 우리가 속한 크나큰 세계 공동체를 상기시키며, 우리가 곧 공동체 안에서 유대감을 형성하고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을 공유하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는 단순히 서로 얽혀 있는 군사체의 구조 뿐 아니라 우리가 현재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의 형태까지 아우르는 것입니다.

인간과 비인간의 연결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전시는 고대와 현대의 지식을 연결합니다. 수백 년 동안, 수 많은 문화와 전통이 강제적으로 사라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으로부터 시작된 지혜는 그 전통을 지키며 세상의 모든 만물을 연결하고자 하는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는 양자물리학의 논리와 일치합니다. 양자물리학 이론에 따르면, 원자 뿐 아니라 아원자까지 모든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떼어 내려고 해도 떼어낼 수 없는 물질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연속적이면서도 불연속적 물질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술을 성찰하고 때로는 수용하면서, 이번 프로젝트는 관객으로 하여금 신체적, 기술적, 영적인 통찰력을 되찾을 것을 제안하고, 이는 현대와 고대의 기술 혹은 지혜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간극을 연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과제를 탐색하고, 지구의 다면적인 지능을 알아차림과 동시에 혁신적인 공존을 이뤄낼 것을 제안합니다.

박주원, 발렌타인 우만스키  
공동 큐레이터

# All that Weaves the Universe: A Question of Quantum Entanglements

With the exponential rise of digital technologies, our intrinsic ties to the natural world have become increasingly mediated, distant and fragile. The space and boundaries between the human and nonhuman are being fundamentally reconfigured. In a time of absolute climate emergency, nurturing the things and beings with whom we share our ecosystems feels more pressing than ever.

*All that Weaves the Universe* engages with this topic through a selection of time-based media works. While these looped videos offer varying perspectives, they persistently challenge colonial structures and processes, emphasizing how the interplay between capitalism and colonialism has driven economic inequality, cultural loss, environmental harm, and exploitative dependency, profoundly affecting our societies.

In the exhibition, weaving acts as a metaphor for understanding the interconnectedness of all things and beings through space and time. An inter-species activity, weaving reminds us of the broader community we are a part of, and with which we share the capacity and thrive to make bonds. It invites mycelium and digital networks under a shared embrace.

While considering the porosity between human and nonhuman, the exhibition connects ancient and modern knowledge systems. For centuries, and

despite the forced erasure of their cultures and values, indigenous elders have preserved practices that affirm the balance of all things as interconnected, all events interrelated, and all phenomena interdependent. Their apprehension aligns with current principles of quantum physics; the study of matter and its interactions with energy on the scale of atomic and subatomic particles. Quantum theory suggests that the universe is fundamentally interlinked and indivisible, made of matter at once continuous and discontinuous.

While reflecting on and at times embracing technology, the invited artists and their works offer bodily, technological, and spiritual insights, bridging the supposed gap that exists between modern and ancient technologies, or wisdom. In doing so, they help us navigate present and future challenges, fostering innovative coexistence with our planet's multifaceted intelligence.

Joowon Park, Valentine Umansky  
Co-curators



## A Question of Quantum Entanglements

### 양자 얽힘에 관한 질문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자연 세계와의 본질적인 유대가 점점 약화되며,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경계가 재구성되고 있다. 과학은 수 세기 동안 물질과 생명체를 분류하고 경계를 설정하며, 이성적인 체계로 구분하고 규정지어 왔다. 그러나 “양자 이론”이라는 개념의 등장은 전통적인 과학적 분류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이 과학적 명제에 따르면, 자연은 결코 구분되거나 나뉠 수 없는 특성을 지닌다. 챕터 1에서는 ‘양자 얽힘’이라는 프로그램

전반의 핵심 주제를 세 편의 영상 작품을 통해 소개한다. 참여 작가 조세파 응잡, 지몬 스파이저, 타비타 르제르의 작품은 1900년경 발전된 양자 이론의 공간이 되는 개념들이 이미 수 세기 전부터 여러 세대와 선조들의 이해와 실천 속에 존재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개념들을 둘러싼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남아프리카 철학자 루엔도 응가라의 말을 인용하자면, “양자 물리학은 미시적 차원에서 우리가 ‘참여 우주’에 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우주는 시공간이 상대적이며, 만물이 상호 연결되었습니다. 입자는 그 존재에 있어서 파괴 가능성과 불멸성을 동시에 내포하며, 물질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이중적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온 원주민의 지혜에 최첨단 과학 연구가 마침내 근접하고 있습니다.”

With the exponential rise of digital technologies, our intrinsic ties to the natural world have become increasingly fragile. The boundaries between the human and nonhuman are being reconfigured. While science has for centuries organized and rationalized matter and beings by creating taxonomies, boundaries, and classifications, a fundamental shift happened with the development of what was coined the “quantum theory.” This scientific proposition reveals that nature is indivisible. The three films grouped together form the inaugural chapter of *All that Weaves the Universe*. Together, they introduce the idea of Quantum entanglements, and explain how, while this development is dated to 1900, the ideas

it expands upon have been thought through and put into practice by generations of elders, for centuries prior. Artists Josèfa Ntjam, Simon Speiser, and Tabita Rezaire navigate these ideas pulling threads. To quote South African philosopher Rutendo Ngara: “The subatomic level of quantum physics has shown that we live in a participatory universe – one of relativity of space and time – one in which all things are inter-connected. Particles are at once destructible and indestructible; matter is both continuous and discontinuous. (...) The cutting-edge science is finally catching up to eons of indigenous wisdom.”



# Josèfa Ntjam

based in Saint-Étienne, France. (b. 1992)

## *Quantum Mecanic*

〈양자역학〉, 2020, 7 min



Courtesy of the artist, Ateliers Médicis, Clichy-sous-Bois, and NiCOLETTI, London

조세파 응잠은 생물학, 아프리카 신화, 공상과학을 통해 유동성의 개념을 탐구하는 예술가이자 퍼포머, 작가이다. 2020년, 그녀는 시간의 개념을 다루는 영화 〈양자역학〉 제작을 의뢰받았다. 이 작품에서 응잠은 양자 물리학의 시간 개념과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고립된 시간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다. 영화는 처음에는 선형적인 타임라인을 따라 전개되지만, 주인공이 T 시간의 개념을 거부하면서 혼란에 빠진다. 그녀는 '불확정성 원리'에서 영감을 받아, 한 입자의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주인공의 위치를 알 수 없게 만드는 파동치는 시간을 구현한다. 또한, 고전 물리학과는 다른 확률적 체계를 수용하며, 시간이 무한히 겹겹이 쌓이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Josèfa Ntjam is an artist, performer, and writer exploring concepts of fluidity through biology, African mythologies, and sci-fi. In 2020, she was commissioned to create *Quantum Mecanic*, a film which problematizes the notion of time. Ntjam questions its interpretation in quantum physics and the shift in its apprehension following the period of isolation caused by Covid-19. The film initially unfolds within a linear timeline but is soon disrupted as its main character rejects the idea of T time. Inspired by Heisenberg's uncertainty principle – a theory demonstrating the impossibility to calculate two properties of the same particle simultaneously –, Ntjam's work conjures up an undulating time in which it becomes impossible to determine the position of the character. Embracing a system of probability divergent to that of classical physics, it displays a time that accumulates in layers; infinitely stretching out.

# Simon Speiser

based in Regensburg, Germany. (b. 1988)

## *Naufragio Liberador (Liberating Shipwreck)*

(해방의 난파선), 2024, 15 min



Courtesy of the artist

지문 스피어저는 '끈 이론'의 관점에서 에콰도르 에스메랄다스의 마룬 공동체 역사를 바라보며, 에스메랄다스 해안에서 발생한 난파선 사건들과 블랙홀의 개념을 중첩한다. 이 난파선들은 1533년경 아프로-에콰도르 공동체의 자유를 가능하게 했으며, 많은 아프리카계 노예에게 피난처가 되어 준 마룬 정착지를 세우게 된 계기이다. <해방의 난파선>은 가설적 물리학, 끈 이론, 양자 이론에 대한 인터뷰, 식민지 역사와 의식을 담은 푸티지, 디지털로 구현된 풍부한 자연 풍경을 유기적으로 엮어 낸 스피어저의 새로운 영상 작품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다.

Looking at the history of the maroon society of Esmeraldas, Ecuador, through the lens of string theory, Speiser superimposes conceptions of black holes with the occurrences of shipwrecks on the coast of Esmeraldas. These shipwrecks enabled the freedom of Afro-Ecuadorian communities as early as 1533, when they established maroon settlements, which became a haven for many others. Blending together interviews about speculative physics, string and quantum theories, colonial history, footage of rituals and digitally rendered lush landscapes, Simon Speiser's new film, *Naufragio Liberador*, is premiering within the exhibition.



# Tabita Rezaire

based in Cayenne, French Guyana. (b. 1989)

## *Deep Down Tidal*

(조수 저 깊은 곳에), 2017, 19 min



Courtesy of the artist and Goodman Gallery

타비타 르제르르는 디지털 세계, 신체, 조상의 기억을 갈등이 내제된 공간으로 상징하고, 과학적 상상력을 통해 몸과 마음, 영혼에 깊이 각인된 식민주의의 복잡한 양상을 해체하고자 한다. 그녀의 작업은 양자·우주 역학에서 영감을 받아, 기술과 정신성이 만나는 시간과 공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조수 저 깊은 곳에〉은 소통을 위한 전도성 인터페이스로서 물이 지닌 잠재력을 모색한다. 해저 광케이블부터 침몰한 도시, 익사한 시신, 숨겨진 항해의 역사, 신성한 전승에 이르기까지, 바다는 복잡한 네트워크의 무대가 된다. 정보통신 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기술 발전의 이면에 자리한 문화적, 정치적, 환경적 함의를 새롭게 조명하길 시도한다.

Navigating digital, corporeal, and ancestral memory as sites of struggles, Tabita Rezaire embraces scientific imaginaries to tackle the pervasive matrix of coloniality affecting our body-mind-spirits. Inspired by quantum and cosmic mechanics, her work is rooted in time-spaces where technology and spirituality intersect. *Deep Down Tidal* excavates the power of water as a conductive interface for communication. From submarine cables to sunken cities, drowned bodies, hidden histories of navigations and sacred transmissions, the ocean is home to a complex set of networks.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become omnipresent in our industrialized realities, the film prompts us to reconsider the cultural, political, and environmental forces that have shaped them.





## Longing & Belonging

### 갈망과 소속감

이 네 편의 영화는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혁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정체성과 감시에 대한 질문을 직접적이거나 상징적인 방식으로 제기한다. 디네오 스샤 보파페의 〈내가 하늘이라면〉은 흑인 해방을 위한 개척지로서 우주의 무한적 가능성을 탐구하는 반면, 앨리슨 응우옌과 비토리아 크립의 작품은 디지털 통제 시스템의 보편화를 통해 현대적 억압의 형태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다. 이 네 작품은 오늘날의 시대에서 감시되지 않는 공간을 찾고 연결하는 방법에 조명하며, 자본주의와 기술의 상호작용이 경제적 불평등과 착취적인 의존성을 어떻게 촉발했는지를 강조한다. 또한, 정체성의 경계를 흐리거나 평행 우주를 구축함으로써 해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These four films deal with the possible subversions of digital space, raising questions around identity and surveillance, in direct or symbolic ways. While Dineo Seshee Bopape's *is i am sky* offers the possibility of cosmic infinity as a frontier for Black liberation, Alison Nguyen's and Vitória Cribb's works raise concerns about contemporary forms of oppression, through the generalization of digital mechanisms of control. Together, the four works reflect ways of finding – unmonitored – spaces to connect in today's age. They aptly emphasize how the interplay between capitalism and technology has driven economic inequality and

exploitative dependency and offer possibilities of liberation through the blurring of identity markers and the construction of alternate universes.





Courtesy of the artist

## *BUGs*

*BUGs*, 2023, 5 min

# Vitória Cribb

based in Rio de Janeiro, Brazil. (b. 1996)

본 단편 애니메이션 작품에서는 신체가 눈과 귀로 뒤덮여 디지털 기술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감시하는 사이버네틱 캐릭터가 등장한다. *BUGs*에서 작가는 통제되지 않는 온라인 감시와 그 안에 내재된 예측 불가능한 실패와 오류라는 주제를 다룬다. 마지막 장면에서 메인 캐릭터는 인간의 형상에서 돌연변이를 일으켜 반은 벌레 (자연), 반은 자동차 (기술)의 모습으로 변형된다. 이러한 인간과 기계, 자연과 기술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유동적인 성 정체성 개념을 드러낸다.

Cribb introduces a cybernetic character, whose body is covered with eyes and ears, and who continually watches and listens to us through digital technologies. With *BUGs*, the artist addresses unbridled online surveillance, and its inherent but unexpected failures and errors. The film ends on the character's transformation from a humanoid to a mutant, part bug (nature), part car (technology). Through this blurring of boundaries, it aptly highlights the merging of fluid identities.

# Alison Nguyen

based in New York, USA. (b. 1986)

*my favorite software is being here*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프트웨어는 이곳에 있는 거야), 2021, 20 min



Courtesy of the artist

앨리슨 응우옌의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 '안드라 에잇(Andra8)'은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되어 인터넷의 가상 진공 환경에서 성장한 캐릭터이다. Andra8은 배정된 아파트에서 가상 비서, 데이터 정리원, 인생 코치, 인플루언서 지망생,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프리미엄(freemium)' 직업이라 불리는 역할로 일하며 번 데이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디지털 노동자이다.

Andra8, the main character in Alison Nguyen's film, was created by an algorithm and raised by the Internet in a virtual void. From the apartment where she has been placed Andra8 works as a digital laborer, surviving off the data from her 'freemium' jobs as a virtual assistant, a data janitor, a life coach, an aspiring influencer, and content creator.



# Stephanie Comilang

based in Toronto, Canada and Berlin, Germany. (b. 1980)

## *Lumapit Sa Akin, Paraiso (Come to Me Paradise)*

(파라다이스여, 내게 오라), 2016, 25 min



Courtesy of the artist

'Paraiso'는 모든 것을 관찰하는 드론 영혼으로, 매주 일요일 홍콩의 중심부에 소환되어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이 모여 어울리는 공간에 나타난다. 작가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영화 속 유령 혹은 영혼은 '파라이소'라고 불립니다. 그녀는 여성들과 그들의 고향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영화 속 유령은 저승으로 가기 위해 길을 찾고, 인간이 그 통과를 돕는 중재자 역할을 하지만, 제 영화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파라이소는 여성들의 메시지를 고향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코밀랑의 SF 다큐멘터리는 경제적 이주와 현대 기술 시대에서의 사회적 연결을 깊이 탐구한다.

Paraiso, an all-seeing drone spirit, is summoned every Sunday into the heart of Hong Kong where Filipina migrant workers gather to socialize. In the artist's words: "The ghost or spirit in my film is called Paraiso. She acts as an intermediary between the women and their place of origin. Often, when ghosts are portrayed in films, they try to find their way to the other side, and humans act as mediators to facilitate this passing. But in my film, it is the opposite. Paraiso is the mediator who sends the women's messages back home to their loved ones." As the women claim the public space, Comilang's sci-fi documentary considers social connections in today's age of economic migration and modern technology.



# Dineo Seshee Bopape

based in Johannesburg, South Africa. (b. 1981)

*is i am sky*

(내가 하늘이라면), 2013, 18 min



Courtesy of the artist and Sfeir- Semler Gallery Beirut/Hamburg

인근에서 촬영되었으며, 작품명은 재즈 작곡가 선 라 (1934-1993)의 시 '끝 없는 영역(*The Endless Realm*)'(1972)에서 영감을 받았다. 첫 장면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나는 정말로 존재하는가...”라는 시절로 시작하며, 우주의 무한성을 흑인 해방의 새로운 지평으로 기념하고자 했던 선 라의 정신을 작품에 담아낸다. 영상을 제작하던 당시, 아프리카 국민회의 청년 연맹의 줄리우스 말레마 전 의장은 남아프리카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는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되어 혐오 발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영상에는 아프리카 크림 프리덤 합창단이 부르는 '함바 칼레 음콘토(*Hamba Kahle Mkhonto*)'라는 곡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는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에 희생된 이들의 장례식에서 자주 불렀던 곡이다.

Bopape's video explores her relationship to both land and cosmos, as well as wider histories of oppression. The artist explained: "I was trying to find a way of marrying the sky, to merge with the space that nothing occupies." Filmed near San Francisco in 2011, the work's title refers to jazz composer Sun Ra's (1934-1993) poem *The Endless Realm*, written in 1972. It begins: "I have nothing. Nothing! How really is I am..." Bopape's work echoes Sun Ra's celebration of cosmic infinity as a frontier for Black liberation. During the video's making, former African National Congress (ANC) Youth League President Julius Malema was put on trial in South Africa. A prominent activist, he was convicted of hate speech after singing a contentious lyric from an anti-apartheid song. In response, Bopape can be heard singing the African Cream Freedom Choir's *Hamba Kahle Mkhonto*, a song often chanted at the funerals of those killed during the apartheid years.

본 비디오 작업은 땅과 우주, 그리고 그 범위를 초월하는 억압의 역사 간의 연관성을 탐구한다. 보파페는 작품에 대해 “하늘과 하나가 되고, 공백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고 설명한다. 이 작품은 2011년 샌프란시스코





## On Time, Data and Speed: Visions of Postmodernity and Acceleration

### 시간, 데이터, 속도에 관하여: 포스트 모더니티와 가속주의 가 제시하는 비전

챗터 3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현시대를 배경으로, 그 이면에 내재된 복잡성과 영향력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작품들을 소개한다. 참여 작가들은 기술 발전이 인간의 지각, 노동, 정체성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보여주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신중하고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유안 왕은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하는 현실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디지털 시대에 물질적인 경험의 결핍을 부각시킨다. 김아영은 노동과 인간의 정체성에 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며, 현사회가 추구하는 최적화와 인적 효율성에 따른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룬다. 클레멘스 폰 베데마이어의 작품은 기술 네트워크가 사회에 미치는 변혁적 영향을 탐구하며, 미래에서 온 경고를 전하며 관객들로 하여금 현재 기술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깊은 성찰을 촉구한다.

In an era dominated by digital technology, the artists delve into its complexities and consequences. The works offer critical reflection on how technology shapes our perceptions, labor practices, and identitie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navigating these changes thoughtfully and sustainably. Yuyan Wang questions the true essence of what we perceive and experience in the digital age, highlighting the lack of substantive experiences. Ayoun Kim raises questions about the impact of technology on labor and human identity, highlighting issues of optimization and the human cost of efficiency. Clemens von Wedemeyer examines the transformative impact of technological networks on society. It concludes with a warning

from the future, urging viewers to reconsider the consequences of our current technological trajectory.



# Yuyan Wang

based in Paris, France. (b. 1989)

## *One Thousand and One Attempts to Be an Ocean*

(바다가 되기 위한 1001번의 시도), 2021, 11 min



Satisfactionclip

본 작품은 인터넷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힐링 되는 영상”들을 소재로 심층적 사고의 부재를 드러낸다. 인터넷 이미지의 피상성과 대비는 재발견의 순간에 느껴지는 심오한 감정과 기묘함을 나타내며, 트랜스 음악이나 미니멀 음악을 시각화한 듯한 추상적인 방식으로 내러티브를 구축한다. 이 영상 작업은 사회적 스펙터클과 정보 과잉이 만들어낸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단면적이고 반복적인 현대 디지털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인식과 경험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One Thousand and One Attempts to Be an Ocean* explores the lack of depth perception through a compilation of “satisfying videos” from the internet. It creates an abstract narrative akin to trance and minimal music, juxtaposing the superficiality of internet imagery with the emotional depth and uncanniness of rediscovery. The video serves as a critique of the superficial and monotonous nature of modern digital culture, reflecting societal spectacle and the entropy of information overload, questioning the true essence of what we perceive and experience.



# Ayoung Kim

based in Seoul, South Korea. (b. 1979)

## *Delivery Dancer's Sphere*

〈딜리버리 댄서의 구〉, 2022, 25 min



Courtesy of the artist

본 작품에서는 '댄스마스터'라는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구축된 배달 플랫폼 '딜리버리 댄서' 소속의 여성 배달 라이더 에른스트 모가 등장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에서 출발한 〈딜리버리 댄서의 구〉는 킥 이코노미와 플랫폼 노동, 현실 위에 모바일 스크린의 형태로 포개어진 위상학적 미로, 가능세계 이론, (현실의 문제이기도 한) 배달 라이더들의 극단적 각성상태, 신체와 시간에 대한 끊임없는 최적화를 요구하는 가속주의적 촉구 등을 핵심 주제로 담고 있다. 또한, 이야기는 에른스트 모가 자기 자신과 완벽하게 동일해 보이는 상대역 개체인 엔 스톰을 만나게 되며 전개하는데, 이는 인공지능 시대 속 변화하는 인간과 기술 간의 상호작용을 반영한다. 비가시적 노동의 가속화를 몸소 체화하고 있는 작품 속 배달 라이더를 통해 볼 수 있는 현실은 기술의 최적화 알고리즘에 따른 노동하는 인간 몸의 근본적인 최적화이기도 하며, 이러한 모든 변화와 과정은 비대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기술 사회의 이면에 자리잡고 있다.

*Delivery Dancer's Sphere* is a video work featuring Ernst Mo, a female delivery rider for Delivery Dancer, managed by the algorithm Dancemaster. The narrative delves into the gig economy and platform labor, accentuated during the pandemic in South Korea. It explores complex themes like topological labyrinths, hypervigilance, and optimization. Ernst Mo, a top delivery rider, encounters her ghostly double, En Storm, symbolizing the human-technology interplay in the AI era. Through their encounter, *Delivery Dancer's Sphere* explores not only the on-demand economy, but also themes of hypervigilance and the accelerationist urge to optimize body, time, and space. Delivery riders embody an accelerated form of invisible labor powered by optimization algorithms that, in turn, require the radical optimization of the rider's own body, a process unseen by consumers who find no-contact deliveries left at their doorstep.



# Clemens von Wedemeyer

based in Berlin, Germany. (b. 1974)

## *Esiod 2015*

〈헤시오도스 2015〉, 2016, 38 min



Courtesy of the artist

〈헤시오도스 2015〉는 2051년 비엔나 에르스테 캠퍼스를 배경으로, 한 젊은 여성이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억과 디지털화된 개인 정보를 보관하는 계좌를 해지하려 하지만 그녀를 인식하지 못하는 시스템 오류로 “기억 검사”를 받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본 SF 단편 영화는 디지털 기술과 경제 시스템의 복잡성을 조명하며, 특히 에르스트 캠퍼스의 건축 계획을 중심으로 기술 네트워크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를 다룬다. “저를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보게 될 이미지는 경고입니다. 저는 미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라는 영화의 마지막 대사는 미래에서 온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다.

*Esiod 2015* centers on Erste Campus and tells the story of a young woman in 2051 who returns to Vienna to close her bank account, which holds not only money but also memories and digitized personal information. When the system fails to recognize her, she undergoes a “memory check.” The sci-fi film explores the complexity of digital technology and economics. Interwoven with architectural plans of Erste Campus, it examines the transformative impact of technological networks on society. The film concludes with a future warning: “Please listen to me. The images you are about to see are a warning. I am speaking from the future”.





## Making Kin with the Living 살아있는 존재들과의 연대 만들기

김혜순 시인의 작품 <안새와 밖새>에서 “두 몸 사이가”라는 시구처럼, 챗터 4 작가들은 모든 생명체와 존재 사이에 존재하는 어떠한 “사이 공간”에 주목한다. 해당 상영작들은 자율성보다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 형성을 우선시하는 친밀감의 (불)가능성을 모색하다. 손 글래드웰의 작품 <사과 1-6>은 인간과 동물의 폭력적인 만남을 출발점으로 삼지만, 궁극적으로는 화해의 가능성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다. 이어지는 작품들에서는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친밀성의 공간들을 함께 엮어낸다. 정 보가 제시하는 에코-퀴어적 상상력을 거쳐, 사모아어에서 관계적 공간을 뜻하는 ‘바 (vā)’와 같은 토착 개념, 그리고 사마바자우족의 직조 기법을 지나, 젊은 친구 여성과 비행하는 쇼맨봇 사이의 시적이고 장난스러운 사랑 이야기로 마무리한다.

In her poem *Inside-Bird and Outside-Bird* translated by Don Mee Choi, South Korean poet Kim Hyesoon evokes “the gap between you and me,” prompting readers to reflect on the space of inbetweenness that exists between all living things and beings. It is that very space that each of the artists presented on this screen studies. Together, their works reflect on the (im)possibility of kinship, a form of relationality that favors inter-dependence over autonomy. With Gladwell’s work *Apologies 1-6*, the programme takes as a starting point a violent form of encounter between humans and animals, but further elaborates on possibilities for reconciliations.

The programme then weaves together various spaces of intimacy with the living and the nonhuman, journeying through eco-queer imaginaries, with Zheng Bo, indigenous concepts like the vā, referring to the relational space in the Sāmoan language of Léuli Eshraghi, or the Sama-Bajau techniques of weaving, and ends on a poetic and playful reinvention of love stories – this time between a young Xingu woman and a flying showman-bot.



# Shaun Gladwell

based in Sydney, Australia. (b. 1972)

## *Apologies 1-6*

〈사죄 1-6〉, 2007-09, 27 min



Courtesy of the artist and PALAS, Sydney

〈사죄 1-6〉에서는 호주의 광활한 도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내달리는 퍼포머로 등장하는 작가 자신의 모습을 포착한다. 도로 위 충돌인 '로드킬'을 당한 캥거루와 왈라비 등의 동물들을 마주하고 멈춰 서는 작가는 죽은 동물들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마치 속삭이듯 사과와 위로의 말을 건네며 애도를 표한다. 본 영상 작품에서 인간 문명과 자연의 대립에서 동물은 물리적 최전선을 상징한다.

*Apologies 1-6* finds a performer riding a motorbike on the Australian open road. The rider suddenly comes to a stop alongside 'roadkill' – kangaroos killed by collision – which they gently cradle and whisper to, as if to utter an apology or utter a burial prayer. In this film, the animals represent the physical front-line in the confrontation between humankind and the natural world.



# Léuli Eshrāghi

based in Montréal, Québec, Canada. (b. 1986)

*Sogi Mai*

〈소기 마이〉, 2016, 1 min



Courtesy of the artist

퍼포먼스 영상 작품 〈소기 마이〉는 작가가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소기'라는 의식을 통해 친밀한 공간들을 형성하고 탐구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소기는 신성한 호흡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마나 (축적된 에너지와 존재감)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표하는 행위이자, 그의 보살핌과 관심에 대한 감사를 전달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작가가 캐나다 밴프 국립공원 내 블랙풋, 스톤리 나코타, 츠우 티나 지역의 산과 계곡에서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진행하는 동안 수행되었다.

A performance and video, *SOGI MAI*, features the artist exploring spaces of intimacy through the practice of *sogi* (*so-ngi*) with peers from diverse backgrounds. The sacred sharing of breath to greet and affirm each other's mana – cumulative energy and presence – this gesture is here reference to his care and attention, while in residency in the mountains and valleys of Blackfoot, Stoney Nakota and Tsuu T'ina territory within Banff National Park, Canada.



# Zheng Bo

based in Lantau Island, Hong Kong. (b. 1974)

## *Pteridophilia I*

(테리도필리아 I), 2016, 17 min



Courtesy of the artist

퀴어한 식물과 퀴어 사람을 연결하는 <테리도필리아 I>는 섹슈얼리티와 사랑의 경계를 허물고 자연 세계를 통합한다.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비자연 등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는 퀴어 생태학에서 영감을 얻었다. 대신, 그는 영화에서 사람과 식물의 공동체를 모두 피사체로 설정하여 육체적 친밀감의 장면을 묘사하는 동시에 성별 범주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 영화는 역사적으로 백인 남성의 이성애적 권력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토지 정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Connecting queer plants and queer people, *Pteridophilia I* pushes the boundaries of sexuality and love to incorporate the natural world. Zheng Bo's work is informed by queer ecology, a practice of stepping away and beyond binaries – for example, human or non-human, or natural and unnatural. Instead, he situates both communities of people and plants as subjects in his films, depicting scenes of physical intimacy, while destabilizing gender categories. The film raises questions about human's conquest over land, often historically undertaken from the position of white, male, heteronormative power.



# Léuli Eshrāghi

based in Montréal, Québec, Canada. (b. 1986)

## AOAULI (VILIATA)

AOAULI (VILIATA), 2020/22, 5 min



Courtesy of the artist

*AOAULI (VILIATA)*는 식민지 시대 이전 사모아인들의 삶의 양상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 사운드 및 영상 작품으로, 그들의 목소리와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한다. 에슈라기의 말을 빌리자면, “*AOAULI (VILIATA)*는 시각성의 계보이자, 점령된 아르렌테 압미레 지역의 음파른트웨를 방문할 때면 내 몸이 통과하는 관계적 공간인 바(vā)의 체현된 시각적 표시이며, 수천 년 전 사모아인들이 공유했던 모티프를 형체화하는 작업”이다.

The sound and video work *AOAULI (VILIATA)* gives voice and embodiment to pre-colonial Sāmoan ways of relating the world relayed in Eshrāghi’s extensive research. In their words: “*AOAULI* is a genealogy of our hxstories of visibility, and an embodied visual marking of the vā, relational space, that my body moves through as it visits *Mparntwe* in occupied *Arrenrte Apmere*, and it returns form to collectively shared Sāmoan motifs thousands of years young.



# I-Lann Yee

based in Kota Kinabalu, Malaysia. (b. 1971)

## *Budi's Song*

〈부디의 노래〉, 2023, 12 min



Courtesy of the artist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Kak 부디는 말레이시아 오마달 섬에 거주하는 '바자우 사마 딜라우트' 직공이자 가장이다. 레파 하우스보트에서 태어난 Kak 부디는 열한 명의 자녀를 낳고 키웠으며, 생생한 색채를 조합하는 직조 작업과 판다누스 잎을 준비하는 일에 전념해 왔다. 본 영상 작품에서는, 그녀가 환경 문제와 문화 유산을 상징하는 오래된 생선 건조용 매트와 해변 부유물로 만든 대형 매트인 '테포 푸티 이칸 마신'을 만드는 모습을 담고있다. 이러한 제작 과정과 작품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즉흥 노래는 그녀가 속한 공동체가 바다와 가진 관계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Kak Budi is a Bajau Sama Dilaut weaver and matriarch living on Omadal Island in Malaysia. Born on a lepa houseboat, she carried and raised her eleven children. She dedicates herself to weaving, incorporating vibrant colors, and preparing pandanus leaves. In the film, we see Budi create the 'Tepo Putih Ikan Masin,' a large mat crafted from old fish-drying mats and beach flotsam, symbolizing environmental challenges and cultural heritage. This process and Budi's improvised song, heard in the work, encapsulate her community's connection to the sea.



# Gabriel Abrantes

based in Lisbon, Portugal. (b. 1984)

## *Os Humores Artificiais (Artificial Humours)*

〈인공 유머〉, 2016, 29 min



Courtesy of the artist

〈인공 유머〉는 인간 범위를 확장시키는 친밀성을 선보인다. 스탠드업 코미디(실시간 희극)과 다큐멘터리의 전통적인 양식들을 혼합하는 본 단편 영화는 브라질 싱구 국립공원에서부터 사우파울루까지의 젊은 원주민 소녀의 여정을 기록한다. 사우파울루에 도착한 그녀는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구형 종을 모델로 한 비행 로봇 '앤디 코프먼'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

The last film in the programme, *Os Humores Artificiais* presents a form of kinship that expands beyond the human realm. Blending traditions inherent in stand-up comedy and documentary, the film follows a young indigenous girl from the Xingu National Park to São Paulo, Brazil. There, she falls in love with "Andy Coughman," a flying robot modeled after René Magritte's spherical bells.



# Of Soil, Stones, Steel, and Souls

흙, 돌, 강철,  
그리고 영혼에 관하여



챕터 5는 아프리카 세네갈 출신의 시인 비라고 디오펀의 시 *Les Souffles* (1960)가 제시하는 원초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 “생명체보다 더 자주 / 사물에 귀를 기울이길 / 불의 속삭임을 듣고 / 물의 속삭임을 듣고 / 바람 속에서 듣고 / 덩불의 한숨 소리를 / 이것은 조상들의 숨결이다.”라는 시구처럼, 본 프로그램의 상영작들은 흙, 돌, 강철, 영혼을 아우르는 단 하나의 에너지 장으로서의 세계를 조망한다. 아나 멘디에타와 라우라 그리시의 사고방식에 중요한 개념적 토대가 되는 일체성은 조르다노 브루노의 저서 *Concerning the Cause, Principle, and One*의 주장을 소환한다. “우주는 하나이며 무한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절대적 잠재력은 하나이고, 행위는

하나이고, 형태나 영혼은 하나이고, 물질이나 몸은 하나이고, 사물은 하나이고, 존재는 하나이며, 하나는 최대이자 최고이다... 그것은 모든 존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욕망하거나 희망할 수 있는 다른 존재가 없기 때문에 생성되지 않는다.” 특히, 여성 작가 4인의 작품에서는 네 가지 원소(흙, 불, 공기, 물), 물질, 그리고 인간 몸 사이의 관계를 중심 주제로 삼으며, 이를 통해 재생 주기에 대한 다층적인 성찰을 유도하고자 한다.

Taking its departure from a poem by Senegalese poet Birago Diop, titled *Les Souffles* (1960), this exhibition chapter invites us to embrace elemental thinking, or to quote Diop, to “Listen to things / More often than beings / Hear the voice of fire / Hear the voice of water / Listen in the wind / To the sighs of the bush / This is the ancestors breathing”. It connects soil, stones, steel, and souls within one single energy field. Fundamental to the thinking of artists Ana Mendieta or Laura Grisi, the programme explores the possibility of oneness. It reverts to Giordano Bruno’s *Concerning the Cause, Principle, and One*, which

states that “the Universe is one, infinite, immobile. The absolute potential is one, the act is one, the form or soul is one, the material or body is one, the thing is one, the being in one, one is the maximum and the best... It is not generated, because there is no other being it could desire or hope for, since it comprises all beings.” It sets up a conversation between four works by female artists center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dy and the four elements – earth, fire, air, and water – and matter. In so doing, it invites a broader reflection upon regenerative cycles.



# Ana Mendieta

American, born Cuba. 1948–1985

## *Grass Breathing*

〈숨쉬는 풀〉, c. 1974, 3 min



2024 The Estate of Ana Mendieta Collection, LLC / Licensed by SACK

〈숨쉬는 풀〉에서 작가는 잔디밭 아래 숨겨진 작가의 호흡 리듬에 맞춰 땅의 부드러운 움직임에 담고 있다. 본 작품은 쿠바에서 태어나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한 아나 멘디에타가 197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자연 요소와 자신의 몸을 이용한 일시적인 퍼포먼스를 기록하여 제작한 단편 영상 시리즈에 해당한다. 그녀의 '대지-신체' 작업들은 인간의 몸과 살아있는 대지 사이의 시너지에 주목한다. 작가는 "청소년기에 고국(쿠바)에서 단절된 나머지, 저는 언제나 자궁(자연)으로부터 버려진 듯한 느낌에 휩싸여 있습니다. 저에게 예술은 우주와 저를 다시 이어주고 그 친밀감을 회복하는 수단입니다. 즉, 저의 예술은 모성적 근원으로의 회귀를 나타냅니다." 라고 말한다.

In *Grass Breathing*, a stretch of grass gently pulsates, rising and falling in a rhythm of breath, set in motion by the invisible artist's body underneath. It belongs to a series of short film works the Cuban-born, US-based artist Ana Mendieta made in the 1970s and 1980s: ephemeral performances using natural elements and Mendieta's own body. Collectively, these 'earth-body' works evoked the synergy between the human body and the living earth. Mendieta has said, "Having been torn from my homeland (Cuba) during my adolescence, I am overwhelmed by the feeling of having been cast from the womb (Nature). My art is the way I re-establish the bonds that unite me to the Universe. It is a return to the maternal source."<sup>1</sup>

<sup>1</sup> Ana Mendieta's typewritten artist statement, undated, The Estate of Ana Mendieta Collection Archives, Galerie Lelong, New York, NY. The Estate of Ana Mendieta Collection, LLC.

# Sojung Jun and Jungju An

based in Seoul, South Korea. (b. 1982)

based in Seoul, South Korea. (b. 1975)

## *Ghost Forest Flower*

〈야고〉, 2022, 30 min



Courtesy of the artists

〈야고〉는 제주도 인근에 위치한, 약 300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작은 섬 가파도에서 제작되었으며, 그곳에서 작가가 경험한 응축된 에너지를 소리로 표현한다. 가파도를 오가는 선박의 무선 주파수, 섬의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소음, 바람, 파도, 풀잎 소리 등을 채집하여 제작한 노이즈 음악을 배경으로 이번 영상 작품은 에너지의 움직임을 탐구한다.

*Ghost Forest Flower* was crafted on Gapado, a small island of about 300 inhabitants, close to Jeju Island on the southern edge of South Korea. It captures the condensed energy the artist experienced there through sound. Having collected radio frequencies from ships traveling to and from the island, electrical noise from the island's generators, wind, waves, and blades of grass to create noise music, Jun's and An's work explores the movement of energy.



# Saodat Ismailova

based in Paris, France, and Tashkent, Uzbekistan. (b. 1981)

## *Melted into the Sun*

〈해 속으로 녹아들다〉, 2024, 36 min



All rights reserved by the artist.

〈해 속으로 녹아들다〉는 사오닷 이스마일로바의 가장 최근작으로, 8세기 코라산 출신의 신비주의자이자 혁명가 알-무칸나를 중심으로, 제국의 황혼기에 압바스 왕조에 저항한 전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알-무칸나의 '원시 사회주의' 사상과 마술적 행위는 중앙아시아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본 단편영화는 아무 다리야 강, 칠피크의 원형 고분군, 조로아스터교의 성지 카피르칼라에서 발견된 불의 제단 주변에서 숭배하는 물의 여신 나나를 묘사한 탄화된 문, 우즈베키스탄의 태양로, 우물에서 두 번째 달을 소환하는 등 알무카나의 전설적인 행적에 감동을 받았다는 부하라 도시로 우리를 안내한다.

Ismailova's most recent work records the story of Al-Muqanna (The Veiled One), an 8th-century mystic and revolutionary from Khorasan who fought against the Abbasids in the far-flung reaches of their empire. His 'proto-socialist' ideas and use of magical practices have reverberated throughout the history of Central Asia. The film takes us to the banks of the Amu Darya river, the round burial ground of Chillpiq, to the charred door found in the Zoroastrian fortress of Kafir-Kala that depicts the water goddess Nana, worshiped around an altar of fire, to the solar furnace of Uzbekistan, and the city of Bukhara, all of which were said to have been touched by Al-Muqanna's legendary deeds, such as summoning a second moon from a well.

# Laura Grisi

Italian, born Greece. 1939-2017

## *The Measuring of Time*

(시간 측정하기), 1969, 6 min



Courtesy of the artist

본 16mm 영상 작품에서 작가는 사막에서 모래알을 세는 형언하기 어려운 행위를 선보인다. 정확한 시작도 끝도 없는 이 무한히 반복되는 동작은 시간을 초월한 무한적인 행위를 표현한다. 작가는 본 영상의 작업 과정에 대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동작은 하나의 나선형 시퀀스로 촬영되어, 촬영 방식에서도 반복적인 행위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모래알을 세는 손의 클로즈업 화면에서 시작하여 점차 좀 아웃하며 동작을 수행하는 인물의 모습까지 화면에 담았습니다.”라고 설명한다. 16mm 필름 특유의 거친 흑백 화면과 회전하는 카메라의 움직임은 마치 은하계를 연상시키며, 그 중심에 작가가 위치하고 있다. 미술사학자 스테파노 무두는 2022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그리시의 영화 작업 방식을 “촬영자의 신체는 육체적인 것과 친밀한 것, 과학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번갈아 가며 에너지로 조율된 느낌을 준다.” 라고 평했다.

In this 16 mm film, Grisi embarks on the incommensurable gesture of counting grains of sand in the desert. This repetitive task, with neither a beginning nor an end, becomes the marker of an infinite action beyond time. Describing her process, the artist said: “This endless, repetitive gesture was emphasized in a film shot in a single spiral sequence, beginning with a close-up of the hands counting the grains of sand and expanding outward to reveal the figure performing the action.” The grainy black and white of the film and the rotational movement of the filmmaker conjure up a galaxy, at the heart of which the artist is sited. Upon her inclusion in the Venice Biennale in 2022, art historian Stefano Mudu summarized Grisi’s filmic practice: “the body feels attuned with energies that alternate between physical and intimate, scientific and spiritual”.



# A Line Seeking to Meet Itself

## 자신을 만나려는 선



인간과 비인간, 로컬과 국제가 끊임없이 변모하는 시대에 정체성과 지역성을 탐구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챕터 6에서는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들과 그들의 환경 간의 미묘한 상호관계를 드러내며, 문화적 유동성, 토지 소유권 강탈, 전통과 변화 사이의 균형, 세계적 이슈들 사이에서의 인간 활동에 대한 비판을 탐구하는 작가들에 주목한다. 먼저 장쉬잔은 문화적 의미가 이동하고 지역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묘사하며,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파리의 겹눈을 활용한다. 나오미 린콘 갈라르도는 탈식민주의적이고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 박탈에

대한 비판과 활동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타오 응우옌 판은 메콩 지역에 가해지는 환경적, 사회적 영향에 초점을 맞춰 전통과 변화 사이의 균형을 탐구한다. 인주 첸은 지구 온난화와 자원 착취를 비판하며 역사와 진보에 대한 재성찰을 요한다. 차웨이 차이는 존재의 본질적인 덧없음과 삶의 지속적인 순환에 대해 고찰하며 단순하고 명상적인 행위를 통해 새로운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In an era where the boundaries between human and nonhuman, local and global, are constantly shifting, exploring identity and locality is increasingly pertinent. This section reveals the intricate interplay between personal and collective identities and their environments, bringing together artists who examine cultural fluidity, land dispossession, the balance between tradition and change, and critiques of human activities within global challenges. ZHANG XU Zhan illustrates how cultural meanings travel and reshape local identities, using the fly's compound

eyes to symbolize multiple viewpoints. Naomi Rincón Gallardo critiques land dispossession and emphasizes activism from a decolonial, feminist perspective. Thao Nguyen Phan explores the balance between tradition and change, focusing on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s in the Mekong region. Yin-Ju Chen critiques global warming and resource exploitation, challenging viewers to rethink history and progress. Charwei Tsai contemplates the ephemeral nature of existence and the continuous cycle of life, encouraging new perspectives through simple, meditative acts.



# Zhang Xu Zhan

based in Taipei, Taiwan. (b. 1988)

## *Compound Eyes of Tropical (Animal Story series)*

〈열대의 겹눈〉, 2022, 17 min



〈열대의 겹눈〉은 대만의 로컬 문화와 글로벌 영향 사이의 상호 작용을 탐구한다. 본 애니메이션은 '이젠'이라는 대만 민속 무용과 동남아시아 설화 '강을 건너는 쥐'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반은 쥐, 반은 여우인 주술사 인형 무용수가 등장한다. 작가의 작업은 문화권에 존재하는 유사한 이야기들을 엮어, 문화적 이동성, 정체성, 보편성-지역적 연관성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는데 집중한다. 파리의 겹눈을 통해 펼쳐지는 이 이야기는 전 세계와 지역 내러티브를 넘나들며 문화적 의미가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Compound Eyes of Tropical (Animal Story series)* explores the interplay between Taiwanese local culture and global influences. Inspired by Taiwan's "Yi zhen" folk dance and Southeast Asian folktale 'The Mousedeer Crosses the River,' the animation features a half-mousedeer, half-fox shaman puppet dancer. It weaves similar narratives from various cultures, reflecting on cultural mobility, identity, and universal-local connections. The story, seen through a fly's compound eyes, traverses interlinked global and local narratives, illustrating how cultural meanings transform across regions.

Courtesy of the artist and Project Fulfill Art Space



# Naomi Rincón Gallardo

based in Mexico City and Oaxaca, Mexico. (b. 1979)



## *Opossum Resilience*

〈주머니쥐의 재생력〉, 2019, 16 min

〈주머니쥐의 재생력〉는 시간을 초월하여 연결된 네 명의 등장인물, 힐, 오폭섬, 레이디 9 리드, 그리고 가슴이 여러 개인 아가베를 통해 메소아메리카 신화를 재해석한다. 죽은 척했다가 되살아나는 오폭섬의 속임수를 공유하기 위해 이들은 채취 구역에서 불과 환희를 이용한다. 본 영상 작품은 오악사카의 수탈 문제를 비판하며, 퍼포먼스와 대중음악을 혼합하여 자원 착취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신성한 메소아메리카의 신화와 상징을 현대 지정학적 문제와 결합시킴으로서 탈식민주의적 여성주의 관점을 제시하고, 땅과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토착 공동체의 저항 정신과 운동활동을 부각한다.

*Opossum Resilience* reimagines Mesoamerican myths through four characters—Hill, Opossum, Lady 9 Reed, and a multi-breasted Agave—who exist across overlapping temporalities. They harness fire and joy to share the opossum's trick of playing dead and reviving in extractivist zones. The work critiques dispossession in Oaxaca, blending performance and popular music to highlight the struggle against resource exploitation. By fusing sacred Mesoamerican symbols and myths with contemporary geopolitical issues, it promotes a decolonial, feminist perspective, emphasizing the resilience and activism of traditional communities defending their land and natural resources.

Courtesy of the artist



# Thảo Nguyễn Phan

based in Ho Chi Minh City, Vietnam. (b. 1987)

## *Becoming Alluvium*

〈총적토가 되기까지〉, 2019-현재, 17 min



우화를 통해 〈총적토가 되기까지〉는 메콩강과 그것을 둘러싼 문화를 농업 확장, 어류 남획, 농부들의 도시 이주와 같은 다양한 환경 및 사회적 변화를 통해 살펴본다. 작가는 메콩강 주변 문명이 지닌 물질적, 정신적 중요성을 논하며, 특히 습식 벼농사와 불교 유산과의 관계를 부각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격동과 분쟁의 현실과 대조된다. 최근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 메콩강의 강류와 주민들의 삶이 크게 변화했으며, 이는 불교의 자비와 마음챙김에 대한 가르침과 상충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Becoming Alluvium* continues Phan's exploration of the Mekong River and its cultures, using allegory to examine environmental and social changes from agriculture expansion, overfishing, and farmer migration to cities. Phan describes the Mekong civilization through its material and spiritual significance, highlighting its wet rice agriculture and Buddhist heritage. However, she contrasts this with the reality of turbulence and conflict affecting the region. Recent human interventions have drastically altered the river's flow and the lives of its inhabitants, reflecting a stark departure from the Buddhist teachings of compassion and mindfulness.

Courtesy of the artist and Galerie Zink



# Yin-Ju Chen

based in Taipei, Taiwan. (b. 1977)

## *Extrastellar Evaluations III: Entropy: 25800*

〈항성 외 평가 III : 엔트로피: 25800〉, 2018, 17 min



Courtesy of the artist

〈항성 외 평가 III: 엔트로피: 25800〉은 역사의 파편에 근거한 가설과 예언과 대중매체에 순환하는 이미지와 정보를 조합하여 정확한 종말 날짜를 밝히고자 한다. 본 영상 작품은 열역학 제2 법칙의 '엔트로피' 개념을 인간 본성의 탐욕과 호전성에 연결하여 확장한 작품이기도 하다. 영상 곳곳에는 모든 것이 무한한 창조주의 왜곡된 모습이라는 비인간 지능 '라'의 나레이션이 들려온다.

By using hypotheses and prophecies founded upon a choreography of fragments of history, as well as mass media imagery and information, video *Extrastellar Evaluations III: Entropy: 25800* attempts to reveal when exactly doomsday takes place. This video further adapts the notion of "entropy" from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and connects it to the avarice and belligerence of human nature. Interspersed in the video are the narrations of a non-human intelligence named "Ra" concerning that everything is the distortion of the one infinite Creator.



# Charwei Tsai

based in Paris, France. (b. 1980)

## Circle II

〈원형 II〉, 2011, 1 min



Collection of Mori Art Museum, Tokyo, Japan

본 영상 작품은 얼음 위에 그려져 점차 사라지는 수묵의 엔소, 또는 쥘, 원을 통해 불교의 무상관 개념을 탐구한다. 작가는 육체와 영성의 교감, 그리고 삶의 유한성을 핵심 주제로 우주와 진리를 상징하는 엔소 원이 물에 녹아 사라지는 과정을 통해 불교의 무상(無常)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는 우주와 영적 영역에 대한 사색을 유도하며 단순한 행위가 어떻게 새로운 관점과 가능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준다.

This video work explores the concept of impermanence through the gradual disappearance of an *enso* circle drawn in ink on ice. This piece reflects her interest in the connections between physicality and spirituality, and the transient nature of life. The *enso* circle, symbolizing the universe and truth, dissolves into water, evoking the Buddhist concept of *mujokan*. Tsai's work, prompts contemplation of the universe and spiritual realms, illustrating how simple acts can inspire new perspectives and possibilities.



# Deep Time

## 심층 시간



챕터 7은 프리즈 필름의 핵심 주제들을 포괄하는 장편 영화들로 구성되었으며, 전시 기간 동안 매일 각 영화를 상영한다. 해당 장편 영화들은 삶의 상호 연결성, 기술의 영향, 인간과 비인간적 요소 사이의 균형을 탐구하며 빠르게 진화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인식을 탐색하는 방법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제공한다. 본 상영 프로그램의 첫 번째 오프닝을 장식하는 김수자는 직조를 문화적 상호 연결성에 대한 은유로 사용하여 섬유 전통과 다양한 사회적 요소를 연결한다. 그녀의 작품은 세대와 종을 초월한 삶의 상호 연결성을 이해하고 문화적 전통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왕 투오는 공유된 트라우마 경험과 문화적 반응을 통해 상호 연결성을 탐구한다. 그는 고대의 관습과 현대의 도전 과제 사이의 교차점에 초점을 맞춰 깊은 문화적, 역사적

유대를 드러낸다. 캐롤라인 포기와 조나단 비넬은 디지털 정체성과 정서적 복잡성에 대해 고찰하면서 인간과 비인간적 요소와 현대 사회 구조 사이의 상호작용을 비판한다. 마사 아티엔자는 생태계를 가꾸고 다양한 생명체와의 공존을 인식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번 전시의 주제와 일치한다. 비에라 차카노바는 황량한 환경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탐구하며 생태학적 균형, 기술적 영향, 인간과 비인간 경계의 재구성이라는 전시 주제에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The selection of feature films in this project captures the core themes of our program, with each artist being featured daily from the start to the end of the exhibition. These films delve into the interconnectedness of life,

the impact of technology, and the balance between human and nonhuman elements, offering profound insights into how we navigate our identities and perceptions in a rapidly evolving world. As the first opening of the program, Kimsooja uses weaving as a metaphor for cultural interconnectedness, linking textile traditions to various societal elements. Her work emphasizes understanding life's interconnectedness across generations and specie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cultural traditions. Wang Tuo explores interconnectedness through shared traumatic experiences and cultural responses. His focus on the intersection between ancient practices and modern challenges reveals deep cultural and historical ties.

Caroline Poggi and Jonathan Vinel critique the interplay between human and nonhuman elements and contemporary societal constructs, reflecting on digital identities and emotional complexities. Martha Atienza aligns with the exhibition's focus on nurturing ecosystems and recognizing our shared existence with diverse life forms. Viera Čákanyová examines human existence in a desolate environment, resonating with the exhibition's themes of ecological balance, technological impact, and the reconfiguration of human and nonhuman boundaries.





Courtesy of the artist

## Thread Routes –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I

〈실의 궤적-2편〉, 2011, 24 min

〈실의 궤적-4편〉, 2014, 28 min

〈실의 궤적-6편〉, 2019, 28 min

# Sooja Kim

based in Seoul, Paris and New York. (b. 1957)

〈실의 궤적 (2, 4, 6편)〉은 각각 유럽, 중국, 모로코에서 촬영된 연작으로, 총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은 전 세계를 다양한 나라를 무대로 한다. 이 시리즈는 다양한 직물 문화를 연결하는 공통의 퍼포먼스 요소들을 모자이크처럼 엮어낸다. 영화들은 비서사적 다큐멘터리 형식을 통해 직물, 건축, 자연, 농업, 그리고 젠더 관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구조적 연관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주며 관객을 시적이고 시각적인 인류학적 경험으로 이끈다. 〈실의 궤적〉에서 김수자는 여섯 개의 문화권에서 전통 직조 기법을 병치하여, 직물 문화의 퍼포먼스적 요소와 자연, 건축, 농업, 젠더 관계와 연결한다. 본관에서 열리는 전시는 직물이 다양한 문화에서 인간의 삶에 철학적이고 다채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원천임을 강조하며, 깊이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As the opening screening of this programme, *Thread Routes* (chapters 2, 4, and 6), filmed in Europe, China, and Morocco, respectively, is an ongoing series comprises six chapters, each shot in a different part of the world, creating a mosaic of shared performative elements that unify various textile cultures. These films reveal the structural continuity between textiles, architecture, nature, agriculture, and gender relations within a non-narrative documentary framework, immersing the viewer in poetry and visual anthropology. In *Thread Routes*, Kimsooja juxtaposes weaving traditions from six cultural zones, linking the performative aspects of textile culture with nature, architecture, agriculture, and gender relations. The exhibition in the main hall offers a profound experience, emphasizing textiles as a source of philosophical and anthropological insights into diverse human life across different cultures.



# Wang Tuo

based in Beijing, China. (b. 1984)

*Tungus*

〈통구스〉, 2021, 69 min



Courtesy of the artist

왕 투오는 2018년부터 중국 동북 지역의 샤머니즘 문화를 연구하며, 시간을 초월한 집단적 경험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범샤머니즘”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통구스〉는 1948년에 일어난 ‘장춘 포위전’에서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이 굶주림으로 스러진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 영화에 등장하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한국광복군 병사 두 명이 장춘에서 탈출하려는 과정을 따라가며, 제주 4.3 항쟁의 시공간이 포개지어진다. 1938년 중국의 한커우에서 김원봉에 의해 창설된 조선의용대는 한국 독립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한 한국인들과 중국 동북 지역에 거주하던 조선인 동포들로 이루어진 한국 독립운동단체이었다. 이들은 공산당과 국민당 군과 연합하여, 항일운동에 다대한 공적을 쌓았으며, 해방 이후 국공내전에서 중국인민해방군 동북 야전군에 편입되었다. 1949년 전쟁 종결 이후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지자, 세 개의 한국 독립군 부대는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 〈통구스〉에서는 극심한 굶주림으로 인해 환각 상태에 빠진 학자가 자신이 1919년 5.4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는 모습을 그리는데, 이러한 중첩된 서사들은 동북아시아의 현실을 재구성하고 역사적 트라우마에 뿌리를 둔 동북아시아의 동시대적인 지정학적 딜레마의 근간을 드러낸다. 이렇듯, 왕 투오는 집단적 범샤머니즘의 관점에서 공유된 트라우마를 고찰한다.

In 2018, Wang began exploring shamanic culture in Northeast China, developing “pan-shamanism” to evoke collective experiences across time. His project, *Tungus* investigates the history of Changchun during the 1948 Kuomintang-Communist Civil War siege, where mass starvation occurred. The film follows two Korean soldiers from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attempting to flee, paralleling the Jeju Uprising in Korea. The Korean Independent Divisions were formerly known as Korean Volunteers Army, a Korean peninsula independence organization led by Kim Won Bong in Hankou, China, in 1938. Over many years of recruitment and expansion, it enlisted Koreans who had fled to China and ethnic Koreans living in northeastern China, playing an essential role in the anti-Japanese war with the Communist and Nationalist armies. Later on, it was assembled into the Northeast Field Army of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during the Kuomintang-Communist Civil War. In 1949, with the conclusion of the war, tensions mounted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hree Korean independence Divisions returned to Korea and joined the Korean War. In the film, a scholar, hallucinating from hunger, imagines himself at the 1919 May 4th Movement. These overlapping narratives suggest shared traumatic experiences can lead to collective pan-shamanism, reshaping Northeast Asian realities and uncovering contemporary geopolitical dilemmas rooted in historical trauma.



# Caroline Poggi and Jonathan Vinel

based in Corsica and Toulouse, France. (b. 1990)  
based in Paris, France. (b. 1988)

## *Eat the Night*

〈밤을 먹어라〉, 2024, 107 min



ATELIER DE PRODUCTION - AGAT FILMS & CIE - ARTE France Cinéma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영화는 게임의 중단이 이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정체성, 인종, 감정적 혼란 등의 주제를 다루며, 파블로와 아폴린의 캐릭터들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나이트라는 흑인 남성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며, 이는 인종적, 사회적 문제를 부각시킨다. 이 영화는 전통적인 도구와 매치 컷을 사용하여 인간의 편견과 디지털 및 현실 세계의 정체성 교차점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Caroline Poggi and Jonathan Vinel are a contemporary duo whose work critiques and explores philosophical responses to rapid technological advancements, expressing post humanist themes that reflect and articulate technocratic anxieties. *Eat the Night* explores the blurred lines between digital and physical realities. The narrative follows siblings Pablo and Apolline, and Night, a stranger Pablo falls for, within the open-world RPG Darknoon. The film examines themes of identity, race, and emotional turmoil as the game's shutdown impacts their lives. Pablo and Apolline's characters navigate these changes, while Night, a Black man, faces a tragic fate, highlighting racial and social issues. The film's use of conventional tools and match cuts underscores its critique of humanity's prejudices and the intersection of digital and real-world identities.

캐롤라인 포기와 조나단 비넬은 현대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대한 철학적 반응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기술적 불안감을 반영하는 포스트 휴머니즘 주제를 다루는 듀오이다. 〈밤을 먹어라〉는 디지털과 물리적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을 그려낸다. 내용은 오픈월드 RPG Darknoon 안에서 형제인 파블로와 아폴린, 그리고 파블로가 사랑에 빠지는 나이트와의



# Martha Atienza

based in Bantayan Island, Philippines. (b. 1981)

## *The Protectors* 11° 02' 06.4" N 123° 36' 24.1" E (2)

(수호자들 11° 02' 06.4" N 123° 36' 24.1" E (2)), 2022, 38 min



Courtesy of the artist

마르타 아티엔자는 필리핀 반타얀을 배경으로, 관광 산업의 확장과 기후 변화로 인해 해안 지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다루며, 특히 대대로 어부들의 고향으로 자리해 온 맘바야오 다코 어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안 지역 사회가 직면하는 토지 및 해양 소유권 문제들을 조명한다. 본 작품은 안토니오 투리브의 가족처럼 조상 대대로 살던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야 하는 가족들의 이주 문제를 화두에 던지며, 문화적 지식을 기억하고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본 영상에서 작가는 이국화에 저항하는 어부들의 모습을 경건하게 표현하고 그들의 육지와 바다와의 깊은 관계를 포착한다.

Martha Atienza explores questions of land and sea ownership in Bantayan, Philippines. Focusing on Mambacayao Dako, home to fisherfolk for generations, Atienza documents the challenges faced by coastal communities due to tourism expansion and climate change. Her work highlights the displacement of families like Antonio Turib's, who are losing their ancestral homes. The serie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remembering and preserving cultural knowledge. In the video Atienza resists exoticization, presenting fisherfolk with reverence and capturing their deep connection to the land and sea.



# Viera Čákanyová

based in Bratislava, Slovakia. (b. 1980)

*FREM*

〈FREM〉, 2020, 74 min



Courtesy of the artist

〈FREM〉은 아날로그 이미지와 디지털 이미지의 조합을 통해 사라져가는 남극 풍경을 관찰한다. 본 영화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날로그 사진에서 시작하여 선명한 디지털 장면으로 남극의 광활함을 포착하며, 숨소리, 왜곡된 오디오, 백색 소음을 담고 있는 드론 영상도 삽입하고 있다. 이는 황량한 풍경 속 미니어처 같은 생존자들을 묘사하며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FREM〉은 시적인 다큐멘터리이자 SF 영화이며, 영상 제작 과정에 대한 고찰이다. 특히 드론 기술을 활용하여 남극의 영토적, 지정학적 측면을 드러내고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성찰합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라는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얼음으로 뒤덮인 황량한 환경의 질감과 으스스한 분위기를 강조하여 감각적인 경험을 유도한다.

*FREM* combines analogue and digital imagery to explore Antarctica's disappearing landscape. The film starts with nostalgic analogue photos, transitioning to clear digital shots of the Antarctic expanse, featuring drone footage with breathing sounds, distorted audio, and white noise. It portrays miniature survivors amidst the stark landscape, blending reality with fiction. *FREM* is a poetic documentary, a science fiction film, and an examination of imaging processes. Using drone technology, it captures Antarctica's territorial and geopolitical aspects, reflecting on human existence. The film emphasizes the textures and haunting atmospheres of the icy, desolate environment, rather than focusing on global warming.



# Unveiling Human Experience in a Digital Age: Ewha Highlights

디지털 시대 인간 경험 탐구: 이화 하이라이트



챕터 8은 이화여자대학교 출신 작가들을 조명하는 특별 섹션으로, 인간 정체성의 다면성, 현실과 환상의 교차, 기술 발전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탐구하는 여섯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다. 급변하는 시대상을 배경으로,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한다. 최희정은 일상 속 풍경과 개인적인 기억을 대비시켜 신자유주의 아래 인간 조건을 탐구하고 인공지능이 다양한 경험을 지워버리는 현상을 부각한다. 전보경은 정확하고 일관된 로봇 동작을 재해석하는 무용가들의 불완전하고 다채로운 움직임을 대조하여 인간만의 창의성을 드러낸다. 지지킴은 꿈에서 영감을 받은 이미지를 통해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지점을 탐구한다. 김우진은 소셜 미디어에 처한 아시아 언어들의 현실을 조명하며, 사회적 구성물로서 언어가 지닌 기능과 문화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임우재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 디지털 기술의 영향에 주목하고 자연과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새로운 상상과 변화를 유도한다. 박성연은 브뤼겔의 작품에 등장하는 은유를 착안하여, 명예(지위), 환상, 권력을 무분별하게 갈망하는 사회를 문제시한다.

This special section showcases the works of six talented artists from Ewha, each exploring the complexities of human identity, the interplay between reality and fantasy, and the significant impact of technology on our lives. These artists present unique perspectives that collectively address crucial questions about our existence in a rapidly evolving world. In this section, Heejung Choi contrasts everyday scenes with personal memories to explore the human

condition under neoliberalism, highlighting AI's erasure of diverse experiences. Bokyung Jun contrasts human movement with robotic precision, showcasing human creativity through performers interpreting robotic actions. Jiji Kim delves into the interplay between reality and fantasy through dream-inspired imagery. Woojin Kim addresses endangered Asian languages, examining their function as social constructs and their impact on cultural identity. Woojae Lim highlights technology's impact on our connection to nature, reimagining human and natural world relationships. Sungeon Park uses Bruegel's metaphor to question society's pursuit of status, illusion, and power.



# Heejung Choi

based in Seoul, South Korea. (b. 1987)

## *I found my shadow after a long time*

〈오랜만에 내 그림자를 보았다〉, 2024, 16 min



Courtesy of the artist

최희정은 파운드 푸티지 영상물과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의 1814년 소설 〈그림자를 판 사나이〉에서 발췌한 문장을 결합하여 영상의 흐름을 엮어 나간다. 판타지, 우화적 교훈, 사회 비판을 포괄하는 이 독일 낭만주의 소설은, 악마에게 그림자를 팔아 무한한 금화 주머니를 얻지만, 궁극적으로 파멸에 이르는 주인공 페터 슐레밀의 비극적인 운명을 다룬다. 함부르크의 일상적 풍경과 슬라임 및 밀가루 반죽놀이 영상을 교차 편집한 작품은 신자유주의 시대 속 인간 조건을 탐구한다. 이는 즉물적 감각과 개인적 기억, 특히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신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또한, 영상 중간중간에 삽입되는 데이터 레이블링 푸티지 영상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다양한 경험을 지워버리는 현상을 부각하고, 비인간적인 자동화와 반복적 기억 회복 행위를 담은 장면들의 병치는 경제적 수익을 우선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간과되는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낸다.

Heejung Choi integrates her videos with found footage and excerpts from Adelbert von Chamisso's 1814 novella, *Peter Schlemihl's Miraculous Story*, a German Romantic tale blending fantasy, moral allegory, and social commentary. The story centers on Peter Schlemihl, who sells his shadow for a bottomless bag of gold, only to face dire consequences. Choi explores the human condition under neoliberalism by contrasting everyday scenes of Hamburg with hands playing with slime and flour, symbolizing sensory experiences and personal memories, particularly her grandmother's struggle with Alzheimer's. Interspersed data labeling footage underscores AI's erasure of diverse human experiences. Choi juxtaposes inhumane automation with repetitive, memory-restoring activities, reflecting on humanity's overlooked ontology in a profit-driven era.



# Bokyoung Jun

based in Seoul, South Korea. (b. 1979)

## *I Swear, I Am Not a Robot*

(맹세컨데,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2021, 24 min



전보경은 2016년부터 수공업자들의 기술과 이야기에 주목하는 작업을 선보이며, 아시아 지역에서 기술 발전과 모더니즘이 인간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해 왔다. 본 영상 작품은 로봇의 이률적인 움직임을 화살표로 시각화한 무보를 기반으로, 무용가들이 다양한 신체 부위를 활용하여 로봇의 동작을 재해석한다. 코드를 완벽히 복제하는 로봇과는 달리, 무용가들은 저마다의 상상력, 신체적 기량, 리듬 감각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움직임을 창출한다. 입력값을 주체적으로 체현하고 해석하는 인간의 불완전하고 엇박자의 움직임은 기계의 정확하고 일관된 움직임과 명확한 대조를 이룬다.

Bokyoung Jun explores the human body's perception of technology and modernism in Asia, transforming artisans' gestures and stories into art since 2016. Her work examines skilled labor's value and the evolving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machines, questioning the boundaries of art and non-human existence. In her video work, Jun contrasts human movement with robotic precision by translating complex robotic actions into directional arrows, which performers interpret using various body parts. This approach highlights how humans uniquely embody and interpret information, unlike robots that replicate codes flawlessly. Each performer adds their imagination, bodily capabilities, and rhythmic sensibilities, resulting in varied movements that underscore human creativity and variability. The piece emphasizes the dynamic and imperfect nature of human movement, showcasing the contrast with robotic uniformity and precision.

Courtesy of the artist



# Jiji Kim

based in Seoul, South Korea. (b. 1988)

## *Mermaid's Night*

(하녀의 밤), 2022, 3 min



Courtesy of the artist

본 영상 작품은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시킨 '하녀'라는 캐릭터를 통해 인간 내면에 자리한 욕망과 공포를 표현한다. 꿈에서 영감을 받은 이미지를 모아 종이 세트장을 조립하며 구체적인 세계를 형상화한다. 이는 꿈과 무의식에서 착안한 이미지를 물질화하는 시도이다. 또한, 디퓨저와 특정 조명 기술로 이미지의 선명도를 의도적으로 감소시키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아날로그 매체의 흐릿함을 디지털의 정밀함 속에 구현한다. 인식의 경계, 무의식의 심연, 현실과 환상의 미묘한 상호작용을 제시한다.

Jiji Kim explores the complex interplay between reality and fantasy through the character 'Ha-Nyeo' representing deep-seated human desires and fears. This artwork examines how dreams and unconscious imagery can materialize using a unique approach. Kim meticulously creates a paper set, assembling dream-inspired images into a tangible world. By intentionally degrading image clarity with diffusers and lighting techniques and capturing it with a smartphone camera, she enhances the ambiguity of analog media while maintaining digital precision. *Mermaid's Night* invites viewers to reflect on the boundaries of perception, the depths of the subconscious mind, and the delicate relationship between reality and illusion.



# Woojin Kim

based in Gyeonggi-do, South Korea. (b. 1976)

## *The Person Who Can Wear This Golden Shoe*

〈황금 신을 신을 수 있는 사람〉, 2021, 13 min



김우진은 언어를 사회적 구성물로 탐구하며, 특히 소멸 위기에 처한 아시아 언어들의 현실을 조명한다. 〈황금 신을 신을 수 있는 사람〉은 사라져가는 아이누어와 복원 노력을 다룬 작품이다. 거의 사라진, 유명이 된 언어인 아이누어 사용자에게 유명이 되어가고 있는 제주어를 조사하던 화자가 보낸 대답 없는 짧은 7개의 이메일을 통해 사라진 아이누어와 사라지고 있는 제주어, 그리고 유사한 상황에 처한 아시아의 언어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영화의 구조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500개 이상의 버전으로 변형되어 존재하는 신데렐라 형 설화를 차용한다. 이는 황금 구두에 맞춰 스스로의 신체를 훼손하는 신데렐라 설화에 빗대어, 보이지 않는 사회적 경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특정 언어를 체득하도록 강제하는 상황을 이야기한다.

WooJin Kim explores languages as social constructs, focusing on endangered Asian languages. *The Person Who Can Wear This Golden Shoe* addresses the near-extinct Ainu language and revival efforts. The film is based on seven unanswered emails from a narrator investigating disappearing Asian languages, sent to Ainu language stakeholders. These emails, while discussing Ainu, relate to other Asian languages in similar social contexts. The film's structure draws from Cinderella-type folktales, which exist in over 500 versions worldwide. Historically, folktales positioned people within societal frameworks, akin to how learning a language situates individuals within a society.

Does it only happen to Jeju or Ainu languages?

© and courtesy KIM Woojin

Courtesy of the artist



# Woojae Lim

based in Seoul, South Korea. (b. 1987)

## *Scroll-Stroll*

〈Scroll-Stroll〉, 2024, 11 min



Courtesy of the artist

*Scroll-Stroll*에서는 마치 웹페이지를 스크롤하듯 끊임없이 변모하는 도시 풍경의 조감도를 배경으로, 그 역동적인 화면 중앙에 위치한 인물과의 대비를 이룬다. 디지털 기술로 인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매개되고, 단절되고, 약화되는 현상에 주목하며, 기계적 시점과 파편적인 이미지를 통해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재구성되는 비장소의 공간을 탐구한다. 디지털 화면이라는 틀 안에 제한된 우리의 지각은 자연과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새로운 상상과 변화를 유도하고, 디지털 시대에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점차 불안정해지는 현실을 그린다.

*Scroll-Stroll* presents an aerial view of a solitary figure navigating an ever-changing urban landscape, with the city unfolding below like a webpage. The central figure remains constant and repetitive. Lim examines digital technology's impact on our connection to nature, showing how this bond becomes mediated, distanced, and fragile. Using mechanical viewpoints and fragmented imagery, she explores non-place spaces where human and non-human boundaries are redefined. The work captures how our perception is confined within digital screens, reimagining and transforming our fundamental relationship with the natural world. It highlights the evolving, fragile connection between humans and nature in a digital age.



# Sungyeon Park

based in Seoul, South Korea. (b. 1975)

## *Dowsing Rod*

〈점치는 막대기〉, 2019, 10 min



〈점치는 막대기〉는 넓은 대지에서 수맥탐사를 해 본 작가의 경험과 르네상스 시대 풍속화가 피터 브뤼겔의 작품 〈맹인들의 우화〉 (1568)에서 착안되었다. 사회적, 정치적 은유를 주제로 한 그림들로 잘 알려진 피터 브뤼겔의 작품에서는 당장 앞에 발생할 추락 사고도 모른 채 앞 선 사람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나뭇가지를 들고 천천히 걷는 장면과 시골에서 도시로 변화하는 풍경 영상은 명예(지위), 환상, 권력을 무분별하게 갈망하는 사회를 상징한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수맥, 즉 보이지 않는 실체를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사회 현실을 은유적으로 담고 있다.

This project is inspired by the artist's experience of dowsing and Pieter Bruegel the Elder's painting *The Parable of the Blind Leading the Blind* (1568). Bruegel's work, often seen as a social and political allegory, depicts blind men unknowingly following each other toward a fall. Park uses this metaphor to illustrate the blind pursuit of power. The video shows a person dowsing in the countryside, transitioning to city scenes, symbolizing society's indiscriminate desire for status, illusion, and power. Through this imagery, Park reflects on the social reality of people blindly seeking the invisible.

Courtesy of the artist



### 주최 Hosted by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 주관 Organized by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Ewha Womans University  
College of Art & Design

### 후원 Executive Committee

프리즈 Frieze

### 운영위원회 Advisory Committee

최경실 (조형예술대학 학장), 김지혜 (조형예술대학 부학장),  
강애란 (서양화전공, 영상예술), 문경원 (서양화전공, 영상예술),  
이광호 (서양화전공), 유현정 (디자인학부),  
김남시 (예술학전공), 이찬웅 (이화인문과학원)  
Gyoung-Sil Choi (Dean of College of Art and Design),  
Jihye Kim (Vice Dean of College of Art and Design),  
Airan Kang (Painting Dept., Art & Technology),  
Kyungwon Moon (Painting Dept., Art & Technology),  
Kwang-Ho Lee (Painting Dept.), Hyun-Jung Yoo (Design Dept.),  
Nam-See Kim (Studies of Visual Art),  
Chan-Woong Lee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 실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강애란 (이마프 실행위원장)  
문경원 (Ewha Frontier 10-10 사업, 단장)  
전보경, 최희정 (Ewha Frontier 10-10 사업, 연구원)  
금지원 (Ewha Frontier 10-10 사업, 해외교류 연구원)  
Airan Kang (Chairperson, EMAP Committee)  
Kyungwon Moon (Chairperson, Ewha Frontier 10-10 Project),  
Bokyung Jun, Heejung Choi (Researchers, Ewha Frontier 10-10 Project),  
Jiwon Geum (Researcher, Cultural Exchange, Ewha Frontier 10-10 Project)

### 총괄 디렉터 Director

프랜시스 모리스 (초빙 석좌교수)  
Frances Mary Morris CBE (Distinguished Professor)

### 큐레이터 Curators

박주원, 발렌타인 우만스키  
Joowon Park & Valentine Umansky

### 프리즈 FRIEZE

패트릭 리 (디렉터) Patrick Lee (Director)  
장현서 (페어 & 프로그램 매니저) Catherine Chiang (Fair & Program Manager)  
류다윤 (에디터) Diana Ryu (Editor)  
우지혜 (어시스턴트 에디터) Alex Woo (Assistant Editor)  
김현지 (프로그램 어시스턴트) Gabbie Kim (Program Assistant)

### EMAP Staff

홍보 Public Relations  
금소현 (팀장), 이수영, 조은시, 지예안  
Sohyun Keum (lead), Suyoung Lee, Eunsi Jo, Yean Ji

### 학예 Curatorial Assistant

박서연 (팀장), 구혜미, 김다혜, 김서영, 김승미, 박윤서, 박지윤, 오현경, 왕칸나, 위동은,  
카일리 스테셔  
Seoyeon Park (lead), Hyemi Ku, Dahye Kim, Seoyoung Kim,  
Songmi Kim, Yoonseo Park, Jiyun Park, Hyunkyung Oh, Zhalil Kanykei, Dongeun Wie,  
Kylie Stecher

### 영상편집 Post-Production

손요한나 (팀장), 천예지 (팀장), 박예린, 백지원, 이재운, 주효빈  
Yohanna Son (lead), Yejee Cheun (lead), Yerin Park, Jiwon Baik,  
Jeayun Lee, Hyobin Ju

### 디자인 Design

정윤정 (팀장), 김채원, 박예린, 이유진, 정민수  
Yoonjung Jung (lead), Chaewon Kim, Yewon Park, Yujin Lee,  
Minsoo Jeong

### 회계 Accounting

신예건 (팀장), 안세진  
Yegeon Shin (lead), Sejin An

### 안내 Visitor Engagement

구유빈 (팀장), 강다영, 김가은, 김지연, 박보미, 박지원, 박지현, 신예슬, 심이진, 왕칸나, 윤정원, 임수빈, 정하은, 황유윤, 황정현  
Yubin Koo (lead), Dayoung Kang, Gaeun Kim, Jiji Kim, Bomi Park,  
Jiwon Park, Jihyun Park, Yeseul Shin, Yijin Sim, Zhalil Kanykei,  
Jeongwon Yoon, Suvin Lim, Haeun Jeong, Yuyun Hwang,  
Jeonghyeon Hwang

### 장비 A/V Installation

구유빈 (팀장), 김남인, 이한나, 손린, 송금희, 육초연, 조은솔, 최다영, 최서진, 허정인, 황지은  
Yubin Koo (lead), Namin Kim, Hanna Lee, Lynn Son, Kumi Song,  
Choyeon Yook, Eunsol Cho, Dayoung Choi, Seojin Choi, Jeongin Huh, Jieun Hwang

### 기록 Documentation

양벼리 (팀장), 이수빈, 이한나  
Byeori Yang (lead), Subin Yi, Hanna Lee

### 통번역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금지원 Jiwon Geum

### 번역 감수 Proofreaders

김정선, 양혜원, 장우진  
Joungsun kim, Haewon Yang, Woojin Chang

### 설치 및 기술지원 Installation and technical support

멀티텍, 뮤지텍 Multi Tech, Musitec

### 테크니컬 어드바이저 Technical Advisor

조희대 Heedae Cho

### 사운드 디자인 Sound Design

석혜원 Hyewon Suk

### 홍보영상 제작 Production of PR video

임우재 Woojae Lim

### 발행일 Date of Issue

2024.09.02

### 집필 Author

박주원(Joowon Park) & 발렌타인 우만스키(Valentine Umansky)

### 디자인 Design

정윤정, 이유진  
Yoonjung Jung, Yujin Lee

### 출판 Publisher

레이지애자일  
Lazyagile